

Threees

1212
박재현의 춤
2nd

1121...1121...1121...화장을 하다?

셋빨간거스리

Threees

Thre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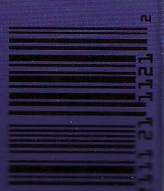
1212
박재현의 춤
2nd

1121...1121...1121...화장을 하다?

셋빨간거스리

2009/10/28/수/PM08:00
INFO_018 571 4381 / 010 5466 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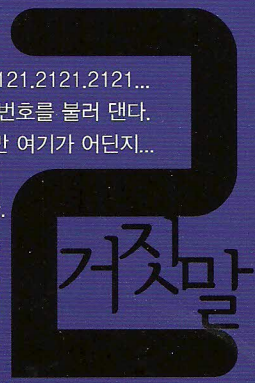
금정문화회
<http://club.cyworld.com>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모른다.
 눈을 떴을 땐 새 하얀 구름과 날 짓누르는 태양.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뿐...
 다시 눈을 떴을 땐 계집아이들이 고무 뛰기 놀이를 하고 있다.
 저 반대편에 눈에 낫설지 않은 또래 사내 녀석이 고무 놀이를 재미있는 듯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흠투성이가 된 옷을 들고 흘리는 피를 손으로 조심스레 훔친다.
 어느새 조그만 한 사내아이가 날 가로막는다. 그리고 웃기 시작한다.
 이유도 모른다. 막 깔깔대며 웃는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어느새 바뀐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자기 뺨에 부린다.
 어딘가 날 닮은 듯한 사내아이는 나지막한 소리로 뭐라고 소곤거린다.
 모든 게 영화의 장면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곧 잡았던 손을 풀며 나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잡히지도 않는다.
 몸도 움직이지 않아 고통스러울 뿐이다.

2121.2121.2121...

시끄럽다... 누군가 미친 듯 귀에 대고 이상한 번호를 불러 댄다.
 이상한 곳에서 또 눈을 떴지만 여기가 어딘지...
 이번엔 너무나 낯설기만 하다.
 하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 있다.
 몸은 일으킬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모든 공포에 이번엔 정말 꿈이었으면 했다.
 2121.년 1121.이 아닌 2121.이야. 잘 기억해!
 그렇게 한마디를 던진 채 모두가 나가 버렸다.
 1121...2121...?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적막감에 모든 게 낯설기만 하다.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본다.
 TV 한 대가 놓여 있다. 전원이 들어오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벌거벗은 듯 누군가가 뒷 모습을 웅크려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다.
 흐느끼며 울고 있는 듯, 무척 애처로워 보이는 게 무척 아파 보인다.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한 없이 베개를 적신다.
 어느샌가 몇 명의 병자들이 나의 방을 엿보며 웃음 짓는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다가와
 어쩔 함참 말을 잃은 아이처럼 재잘재잘 잘도 이야기를 한다.
 얼마나 흘렸을까...1121.2121.1121.2121... 누군가 외친다.
 언제 그랬냐는 듯 침묵을 가진 채 TV안의 저 사람처럼 모두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한다...1121.2121.1121...눈을 감는다...

야 야
 눈을 떴다. 포장마차다.
 눈이 풀린 눈물이 힘겹게 날 흔들어 깨운다. 걱정하는 눈빛이 친구 녀석들인 모양이다. 흑...꿈을 꾸었던 모양이다.
 고무 놀이를 하는 계집애들과 그걸 부러운 듯 바라보는 사내놈
 어딘가 내 모습과 흡사한 게... 씩 유쾌하지 못한 어딘가 기분 나쁜 꿈이다.
 잊자. 다시 술잔을 친다. 옛 얘기를 푼다. 재밌는 듯 모두 즐거워 하며 다시 술잔을 친다. 전장. 기억이 없다. 당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여기 있는지도... 뭐가 그리 재밌는지,
 꿈에 봤던 어린 사내놈 모습과 비슷한 듯하다.
 괜히 기분만 나쁘다. 외롭다. 그리고 왠지 모를 슬픔이 또 다가온다. 그리고 테이블에 곧 이마를 댄다.
 야카부터 계속 들렸던 숫자들...1121.2121.1121.2121.1121.2121.1121? 1121? 1121? 1121612..1121612.. 나의 주민등록 뒷번호다!! 근데 2121은???..... 쓴 웃음이 얼굴을 덮는다. 이제는 이 모든 게 기억 난다. 어린 시절...그리고 쓸쓸한 눈빛으로 날 지켜왔던 너를... 하늘의 달이 사라진다. 하나 둘씩 모두가 떠나기 시작한다.
 여유도 없다.
 살아 있는 모두가 비틀대며 또 바쁘게 어디로 사라진다.
 뒷 모습은 왜 그렇게 아파 보이는지 삶의 흔적조차 안타까워 보인다.
 ...혼자다. 세상 모든 소리가 죽은 듯 조용하다. 다시 고개를 묻고 손톱을 뜯는다. 그리고 립스틱을 입으로 가져간다.

2121_2121_2121_화장을 한다. 그리고 먹는다.

hey bubble, hey bubble. Come this way, I don't
 When I open my eyes, while cloud and heavy sun
 And children are silently singing somewhere.
 When I open my eyes again, little girls are playing.
 There is a little boy in the opposite site,
 watching the little girls curiously. I can't remember,
 Just shaking dirt off the coat and wiping out the
 Meantime, a little boy is blocking my way with sud
 Nobody knows the reason.
 He just keeps laughing and soon it changes into s
 Then he takes my hands tightly, rubbing with his o
 The little boy who has some resemblance to me
 Everything goes slowly like a scene from a movie
 And then he let my hands go, running away from
 I can't move myself at all, Just feeling the pain.

Lie2

2121.2121.2121... Very noisy.
 Someone is shouting meaningless numbers into m
 I woke up again but have no idea where I am...
 Everything is strange to me this time, I'm surround
 I can't move myself at all, Just hoping that it's a tea
 2121! You are 2121, not 1121. You must keep the
 That's the only word given and everyone went ou
 What are they talking about...
 Everything is strange and they makes me lonely.
 I'm looking around in wonder.
 There is a TV, it's turned on and someone appear
 He is crouching in naked body with his head down
 He looks very sick, weeping sorrowfully.
 I don't know, Tears are just running down my face
 making the pillow wet.
 Suddenly some patients peep in my room with sm
 and chaiter to me just as if they were in a hunger
 As time passes by, someone is shouting, 1121.21
 Everyone keeps head down like the man in TV a
 1121.2121.1121... Closing my eyes...

Lie3

Hey! Hey! Opened up my eyes.
 Some absent-minded men are waking me up.
 They should be my friends as they have sympathy
 Oops... Maybe it was a dream, I was almost like
 who was watching little girls playing with rubber
 It is unpleasant dream, I'm trying to forget the dre
 having a drink again.
 Now talking about the old memories. Everyone to
 having a drink again.
 Damn it, I can't remember, I don't know who you
 don't know why I'm here...
 Everyone keeps laughing. What makes you so ha
 They are similar to the little boy in the dream.
 It just hurts my feeling, I feel lonely and the sorrow
 And lie down on the table.
 The numbers which were repeated some time ag
 1121.2121.1121.2121.1121.2121.1121? 1121? 1121?
 It's my social security number!!
 By the way, what's 2121?..... I smile a bitter smile
 Now I can remember everything.
 My childhood days... And you were watching me
 The moon disappears in the sky, Everybody goe
 There is no time, All the living things are stumble
 They look very sick in their back, making their h
 ...I'm alone, Silence is everywhere. Again,
 I hold my head down and bite my nails, And take
 2121...2121...2121...I start my makeup, And then
 Lie.....



ny month.

ake.

congratulations

박재현은 늘 자기 삶을 믿으며 춤추고 작업하며 즐긴다.

그래서 그런지 본인 작품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선다.
 또한 그것을 보는 많은 에너지들이 그를 도우려고 한다.
 그는 인사말에서 그것을 감을 걱정을 한다.
 좋은 작품으로 재현이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다.
 빨간 거짓말 대본에 빨간 거짓말 춤으로
 빨간 거짓말 그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 또래의 무용가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음어...
 땀푹 대회 큰 상 받음어...
 대학에 출강함어...
 자기 작업실에서 춤추고 작업함어...
 배고프지 않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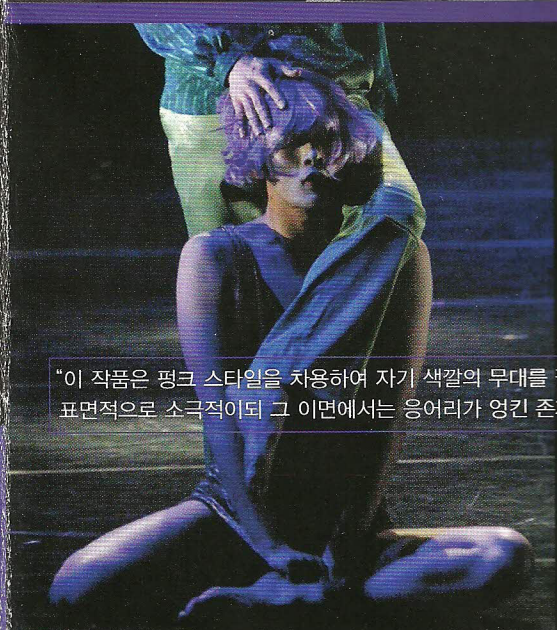
재현이의 화장도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당당한 작품으로 환한 얼굴이 되어가길...

이 공연을 위해 함께하는 무용수와 스텝들,
 관객 모든 분들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2009.09.18. 박은화_부산대학교 교수

Choi Woo-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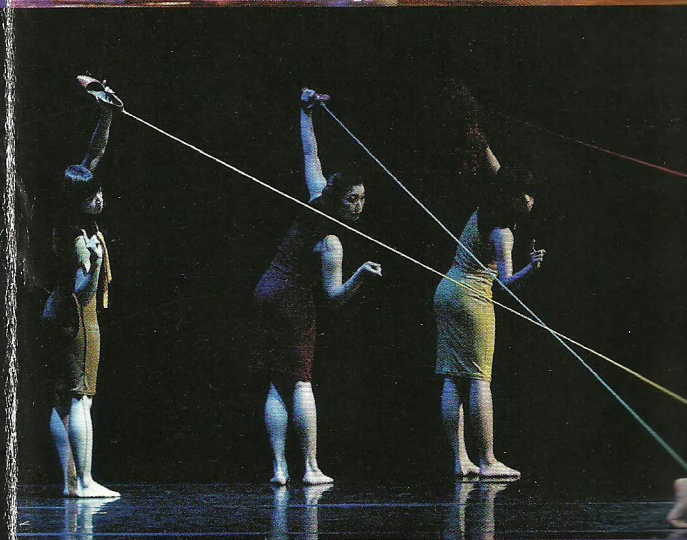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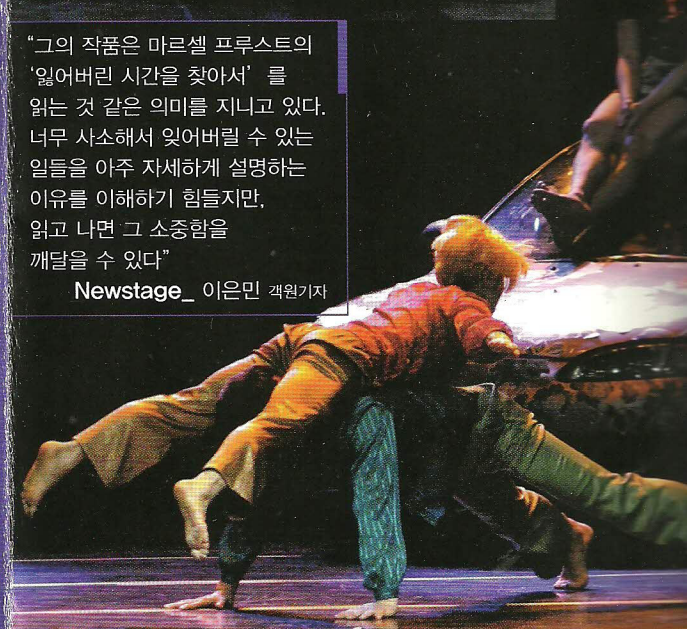
Lee Hee-lym



“이 작품은 펑크 스타일을 차용하여 자기 색깔의 무대를 펼쳤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소극적이되 그 이면에서는 응어리가 영긴 존재를 느끼게 한다.”

“그의 작품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를
 읽는 것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너무 사소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읽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Newstage_ 이은민 객원기자



- 2009 The 3rd World Delphic Games
(Korean representative & winner of silver medal)
- 2008 Choreographed & acted in 'The Guy=Crying', ARKO Theater
(Selected for Choreographer Training Program by Arts Council Korea)
- 2000 Pusan KBS Dance Concours
(Winner of Grand Prix prize)

Completed graduate course, Department of Dance, Pusan University
 The 1st individual performance 'Fever' (2003)
 Choreographed & acted in 'Crying Kyunghee', Dance 2000 Festival
 Choreographed & acted in 'Kyunghee', Seoul Mullaee Art Festival
 Teacher of Pusan High School of Arts
 Representative of modern dance troupe, 'Freedom'
 Member of dance troupe, 'M.Note'